

# 거리의 '막가파 의사들' 5·18재단 '이상한 중국行'

만취 4명, 광주 운천저수지 앞 시내버스 운행 막고 20여분간 욕설·행패

만취한 30대 의사 4명이 도로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막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버스에는 밤 늦게 귀가하는 시민 10여명이 탔고 있었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도로 한켠에서 운행중인 버스를 가로막고 차량을 밟아 차는가 하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했던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37)씨 등 의사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4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렌트도 5차선 도로에서 서 있다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윤모(37)씨의 현대교통 19번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술에 만취해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 뒷문을 밟아 차는가 하

## "왜 경적 울리냐" 화풀이 탑승 시민들 "기가막혀"

면, 버스 운전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늦은 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갓길에 올랐던 시민 1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에서 내린 뒤 5차로에서 서 있다 같은 차로를 이용하던 버스 기사 윤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린 데 항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교통 측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가 차에 부딪쳤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버

스에 장착된 블랙 박스를 조사하는 한 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이발소 간판걸고 사행성 게임

### 동부경찰, 5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이발소 간판을 내건 뒤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송모(52)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동구 산수동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백 만원의 부당이득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사 등 15명, 5·18 왜곡·임을 위한 행진곡 등 현안 산적한 시기 해외연수

(사)5·18 기념재단 이사진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저작 문제와 5·18 역사 왜곡 사태 문제 등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해외로 연수를 떠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 이사진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연길·화룡·간도·백두산·하얼빈 등 독립운동 유적지로 임원 연수를 떠났다.

이번 해외 연수에 참석한 이사진은 이사 15명 중 13명, 감사 2명 등 모두 15명이다. 나머지 이사 2명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들의 해외 연수를 위해 기념재단은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5·18 기념재단·5월 관련단체·시민

## 예산 2500만원 편성

### 세부 일정 공개 안해

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진은 내년 5·18 기념재단 20주년을 앞두고 사업 방향·비전과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결산과 관련, 논의와 일정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퇴출 논란으로 야기된 5·18 기념곡 저작 문제와 5·18 역사 왜곡 문제 등 사회적 과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5·18 왜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국회 등에 개진해야 할 중심에 있는 5·18 기념재단 임원들이 성급하게 연수를 주진했다는

얘기다.

또 5·18 기념재단은 연수 세부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유성 연수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혐의다.

현재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5·18을 왜곡하고 편웨한 일례 사이트 회원 등 10명을 사자명 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5월 현안과 쟁점을 풀어가는 상황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예산은 2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정확한 비용은 모든 일정이 끝나야만 알 수 있다"며 "올해 초 일정을 이미 잡아놨는데, (계획을) 연기하면 이사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폐북에 '가카새끼' 올린

### 이정렬 부장판사 퇴직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0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차명 재산을 해외 투자금으로 가장해 CJ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베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산(Chishan) 개발' 등이 동원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

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하면서 혐의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이 회장에 두는 혐의는 크게 탈세와 횡령, 배임, 주가조작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조성하거나

운용한 전체 비자금 규모를 밝히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을 상대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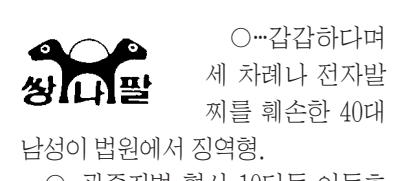
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갑갑하다” 전자발찌 훠손… 또 징역



○…갑갑하다며 세 차례나 전자발찌를 훠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훠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성별죄로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니퍼나 가위 등으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땀이 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절단했다가 실형.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주여성들 화재 진압 실습

광주시 북구 양산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센터 내 교육장에서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 실습을 하고 있다.

교체하고 업소와 연락하는 전용 전화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모씨 등 8명은 지난 2월 11일 새벽 5시께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허락도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려 한다며 3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아난 조직원은 활동을 계기로 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청기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도방 운영·조직원 폭행… 조직 11명 검거

#### 광주경찰, 1명 추적

경찰은 다른 폭력조직원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동가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7명을 고용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모집해 렌터카를 이용, 업소에 공급했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1주일에 한번 렌터카를

### 이재현 CJ회장 검찰 출석

#### 탈세·횡령·배임 등 조사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의 정점에 있는 이재현 회장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하면서 혐의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이 회장에 두는 혐의는 크게 탈세와 횡령, 배임, 주가조작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조성하거나 운용한 전체 비자금 규모를 밝히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을 상대로 국

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 완도해경, 불량 액젓 제조·판매 5명 검거

완도해양경찰은 허가도 받지 않고 억대의 불량 액젓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법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위생 상태가 불량한 멸치 액젓 2만 7000ℓ(시가 5000만 원)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이들은 직접 잡은 멸치로 액젓을 만들어 고무용기에 담아 야산이나 공터에서 보관했으며 소홀한 위생관리로 구더기가 많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압수한 멸치액젓 4만 4000ℓ(시가 1억 3000만 원)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5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6. 24(월) ~ 6. 28(금)  
 ② 전형 일 : 2013. 7. 4(목)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7. 8(월) 오전 10:00  
 ④ 등록 기간 : 2013. 7. 8(월) ~ 10(수)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독회학과(D.Min.)	3	-
	석사	신학과(Th.M.)	12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2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5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 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M.H.타사 신제품 가격균일화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원전 탈부착형 테입X, 핀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삼성1동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500m 구간고 대산프리모가발